



뉴저지연합기도운동 제100차 기도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담임 David Feng 목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 좋은 한국, 북한, 미국 만들기 위해...”

뉴저지연합기도운동, 제100차 기도회 “뜨거웠다”

뉴저지연합기도운동 제100차 기도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담임 David Feng 목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은 2018년 1월 11일(목) 시운제일교회(담임 원도연 목사)에서 첫 기도회를 시작한 이후로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있다.

기도운동은 김호진 장로와 박성길 장로(주니의은혜교회)가 중심이 되고,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장동신 목사, 송호민 목사, 원도연 목사, 권광희 목사, 서정학 목사 등의 현신이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이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병준 목사와 김종국 목사도 자주 기도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곤 했다.

1년 후,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은 변화를 맞는다. 장동신 목사 등 일년 동안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이 자리를 잡는 데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목회자 그룹을 대신하여 김호진 장로, 박성길 장로, 이선용 장로(뉴저지초대교회) 등이 전면에 나서 기도회를 이끌기 시작하여 오늘들에 이르렀다.

현재의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은 장로들이 전면에 나서 이끌고, 초청 받은 목회자들이 설교와 기도



뉴저지연합기도운동 제100차 기도회 참석자들.

로 돋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제100차 기도회는 박성길 장로가 인도했다.

제100차 기도회의 양춘호 목사(올네이션스교회)는 설교를 통해 에스겔 37장 1-10절을 본문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 목사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 있다. 어떻게 하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어서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셋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교회의 회개를 위해”, “북한 땅에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해”, “미국의 위정자와

미국 교계의 회개를 위해”,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뉴저지 일대 교회와 개인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과 개혁 그리고 성경적 복귀를 위해”, “기독교 본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소망과 희망을 담은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해”, “팰팍 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

뉴저지연합기도운동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팰팍에 있는 제일교회(5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201-600-1858(박성길 장로)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